

유도 전국체육대회 승리의 서막을 연다

제103회 대회 사전경기로 오늘부터 열전 제주선수단 강민지·오상우 등 앞세워 메달 사냥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21일 사전 경기인 유도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유도는 펜싱, 배드민턴과 함께 이번 대회 개막에 앞서 사전 경기로 펼쳐진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열전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선수단의 사기를 위해 대회의 스타트를 끊는 유도 종목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도유도회에 따르면 유도는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남녀 19세이하부를 비롯해 남녀 대학부 및 일반부와 19세이하부 및 대학·일반혼성단체전으로 나눠 치러진다. 제주선수단은 남녀 19세이하부와 남녀 대학 및 일반부에서 33명이 메달획득에 나선다.

제주선수단은 올 시즌 성적과 대진추경결과를 토대로 5~6개의 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열린 제100회 대회때는 금 3, 동 5개 등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우선 대회 첫날인 21일 대학부에서 -57kg급의 이본(웅인대)이 나서며, 시범종목인 78kg이상급의 강운지(경기대)가 메달 사냥에 뛰어들었다. 이어 다음날은 남자일반부 -60kg급의 김재현(제주도청)이 출전하며, 여자일반부 -63kg급의 차민지(제주도청)가 경북의 김지수와 첫판에서 격돌한다. -70kg급과 무제한급의 양지영(제주도청)도 메달을 향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고등부의 간판적인 오상우와 강민지(이상 남녕고)가 24일과 25일

선수단에 메달을 선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월 2022 세계유소년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55kg급의 오상우는 최건아(충북)와 대결을 시작으로 메달색깔을 결정하게 된다.

여고부 -70kg급의 강민지도 고등부 마지막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지는 올해 열린 대회에서 4개 대회를 석권하며 명실공히 등급최강의 실력을 선보였다. 대진순까지 따라 준 강민지의 첫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곧바로 동메달을 확보하게 된다. 조상윤기자



왼쪽부터 김태호 도사격연맹 사무국장, 강지애, 김예진, 홍영국 코치, 오예진, 강서정, 박준민 감독.

오예진, 국내 여고 최고 명사수 '명중'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개인·단체 2관왕

오예진(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이 국내 최고의 명사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예열을 마쳤다.

오예진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공기권총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오예진은 지난 17일 열린 대회 여고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김예진(558), 강서정(550), 강지애(541)와 함께 합계 1683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1677점을 쏜 인천예일고와 부산영상고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575점으로 본선에서 대회신기록(573점)을 수립한 오예진은 개인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올 시즌 최

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제2회 제주도사격연맹회장배 전도사격대회에서 582점을 쏘며 제주도 신기록(곽정혜, 2019년 전국체전 578점)을 수립한 오예진은 일찌감치 이번 대회 우승을 예고했다.

오예진은 앞서 지난 8월 제46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생사격대회를 비롯해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와 지난 6월 제4회 창원특례시장배 겸 2023 국가대표(급) 선발전 및 국제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동급최강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메달을 예약해놓은 상태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com

제주 임성재 최다 승점 신기록 '눈앞'

프레지던트컵 골프 22일 개막 한국 선수 역대 최다 4명 출전

한국 선수가 역대 가장 많이 출전하는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가 22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 할로 클럽에서 열린다.

프레지던트컵은 미국과 인터내셔널의 남자 골프 대항전이다.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은 라이다컵으로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프레지던트컵의 인터내셔널 팀에는 유럽 국가 선수들이 제외된다.

이번 대회 인터내셔널 팀 선수 12명 가운데 한국 선수가 4명이나 된다. 임성재(24)와 김주형(20)이 자격으로 선발됐고, 이경훈(31)과 김시우(27)는 단장 추천으로 인터내셔널 팀에 합류했다.

이 대회에 한국 선수가 4명이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 창설된 프레지던트컵에서 한국 선수 4명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최경주가 인터내셔널 팀의 부단장도 맡아 실질적으로는 한국 선수 5명이 나가는 셈이다.

대회 방식은 첫날 포볼(2인 1조로 팀을 이뤄 각자의 공으로 경기

해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해당 출점으로 삼는 방식), 이틀째 포섬(1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이 열리고 사흘째는 포볼과 포섬이 차례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12명이 일대일로 맞대결하는 싱글 매치 플레이로 치러진다.

역대 전적은 미국이 11승 1무 1패로 절대 우위를 보인다. 2005년부터 8연승 중이다.

직전 대회인 2019년 호주 대회 때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단장을 맡은 미국이 16-14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 단장은 미국이 데이비드 러브 3세, 인터내셔널 팀은 트레버 이멀먼(남아공)이 맡았다.

미국은 세계 1위 스코티 스펠러를 비롯해 패트릭 캔틀레이, 젠더 쇼플러, 저스틴 토머스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만 5명이다.

반면 인터내셔널 팀에서는 세계 랭킹 17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가장 높은 순위인 선수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2019년 대회에서 3승 1무 1패(승점 3.5)로 좋은 성적을 낸 경력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임성재가 승점 3점 이상을 따내면 역대 한국 선수의 프레지던트컵 최다 승점 기록인 최경주의 6점을 추월한다. 연합뉴스



카타르월드컵 이·손에 달려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2차례 평가전을 갖는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이강인이 20일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트트릭으로 부활 손흥민 EPL 베스트 11

해트트릭으로 골 침묵을 단번에 깨뜨린 손흥민(30·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주간 베스트11에 뽑혔다.

손흥민은 19일(현지시간) EPL 사무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2~2023시즌 EPL 8라운드 '이주의 팀'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다.

공식 베스트11을 선정하는 엘런 시어러는 "클래스는 영원하고, 손흥민은 풍부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14분 만에 놀라운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18일 레스터시티와 2022~2023 EPL 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

반 14분 교체 투입된 후 세 골을 몰아쳐 팀의 6-2 대승을 이끌었다.

앞서 올 시즌 정규리그 6경기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2경기 등 공식전 8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 부진에 시달린 그는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하며 마구고생을 털어냈다.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데는 단 13분 21초가 걸렸다. 그가 EPL 한 경기에서 세 골을 넣은 건 통산 세 번째이며, 토트넘 구단 소속으로는 리그에서 처음으로 교체 출전한 뒤 해트트릭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뉴스 8:25 아침매일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다음이 온다 AI 혁명(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차 내 인생(재) 10:00 인강뉴스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재) 11:45 똑딱구조대 2(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생활속 오늘 아침 8:50 비빌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푸라기 식사교실 11:15 헬로키즈 클로빙 동물 뉴스(재) 11:45 똑딱구조대 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9:3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예나그날리 11:30 슈퍼디노 11:45 헬로카봇 12 분바	8:00 딩동댕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9:40 유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당신의 유희충전소 15:35 푸라기 전사학 16:25 슈퍼투파어 인공라시 17:30 히어로 세울 18:00 생활속 워터지 해결단(재)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아미도 마지막 존재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경계 16:00 시사간선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재) 13:30 호적메이트 스페셜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전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류에게서 그 사람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0 호적메이트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전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류에게서 그 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재) 14:00 네모세모(재) 15:00 제사차 15:30 휴먼다큐 병영의 달인 16:00 와이드 정보소 알고 보면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권역과 공치리 4 전승부(재)	8:00 JDC 글로벌 아카데미 9:30 KCTV 스페셜 사랑해 제주인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00 탐라의 병에, 귀리 12:30 여왕의 레시피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7:00 미리 보는 오메라 이종실 18:00 KCTV 디큐스스페셜 19:00 KCTV 뉴스 20:00 JDC 글로벌 아카데미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연단 제주 20:30 오라차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기연 20: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50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23:00 스투디오 K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비빌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막사세·막사가 사는 세상 22:30 라디오스타	18:50 생활속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권역과 공치리 4 전승부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서훈입니다 12:00 CBS남중합뉴스 14:05 송명미의 속삭음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생명의 생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승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1일

김중상 지단(組) 지역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협 교수(010-5233-6136)

36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48년 연로한 어른에게는 안부인사로 격정을 털어라. 60년 새로운 모임 또는 나를 리더로 필요로 하며 재정적 지원도 요청한다. 72년 사업에 자금이 지출되고 투자할 일이 생겨 고민한다. 84년 활발한 추진력과 활동성을 하게 된다.

37년 상대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조절을 잘하라. 49년 함께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 일이 생긴다. 61년 신경이 예민해지고 대항하려 한다. 부부간 논쟁 주의. 73년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남과의 비교는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85년 상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의존이나 의타심을 갖지마라.

38년 주변과 화합하면 안되는 일도 가능해진다. 50년 아침에 우울함이 늦게까지 가니 웃음과 기쁨을 만들면 좋다. 62년 부모님 또는 처 때문에 일거리는 늘어나고 분주하다. 74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었으나 기대치에는 부족함이 있다. 86년 이성교제 또는 모임이 있다. 적극 참여하라.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39년 친구나 동료에게 신변에 이상과 병문안. 51년 자금지출이나 손재수가 우려된다. 문단속 철저. 63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어나 생선이나 허자를 만드니 조심. 75년 과욕은 불만족을 일태하는 괴물이다. 현실에 적당한 타협이 필요한 때. 87년 취업 또는 자격시험이 있다면 서두르려나 불리하니 신중함을 가져라.

40년 뜻밖에 수입이 생기거나 일이 풀린다. 이렇사람과 상의도 필요하다. 52년 불만이 때론 다가와도 걸음도 틀어내지 말 것. 64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근심도 있다. 76년 업무과중으로 피로를 느낀다. 도와 주고 구실을 받을 수 있으니 언행 주의. 88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활용도 나의 목표이다.

41년 주위에 친한 사람 신변이상으로 병문안 할 일이 생긴다. 53년 돈 문제로 신경을 쓰거나 다툼이 있다. 65년 문서관련 문제가 발생하니 보중주의. 77년 상사와의 관계를 잘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온다. 89년 기대하지 않던 소식이 있다. 소개팅이나 약속이 생긴다.

42년 아랫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 일이 두배로 증가. 54년 자녀나 직원이 도움을 청하니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 66년 사람을 믿지마라. 내게 손실과 손해를 준다. 상냥하게 거절하라. 78년 금전지출 시비가 발생하니 돈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90년 가족,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43년 사업자는 확장보다 현재 유지. 직장인은 변동수가 있으니 대비하라. 55년 내심을 기하는데 집중해야. 부부간에 의견차이로 불화. 67년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지고 망신조 조심해야. 79년 부모와의 의견다툼이나 부부불화가 있으니 격한 감정은 조절하라. 91년 시기가 오면 결정을 신속히 하면 이득이 있다.

44년 숨이 트이는 형국이며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56년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국. 하나에 집중 필요할 날이다. 68년 많은 생각과 장고는 신중한 업무처리에 적이며 기회를 찾아 간다. 80년 취업이나 직장문제로 마음이 분주하다. 92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조심.

45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봐라. 57년 배우자 덕이나 재물이 없다. 69년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자리를 이동하려 한다. 직업이 전 또는 신규 직장이 생긴다. 81년 친구, 동료를 자주 만나 정보교환 하라. 93년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주변인의 지혜를 얻어라.

46년 투자 시 많은 정보 속에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58년 문서상의 일이 생기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 길이 있다. 70년 매매나 문서 계약에 성사되나 자급력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82년 신경이 예민하니 상대와 경쟁하면 불리하다. 신경전은 삼가라. 94년 관재나 구실이 오니 외부 출타는 자제하는 게 좋다.

47년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라. 마음 속의 진실도 상대에게 전달될 때 효과가 있다. 59년 교통사고, 관재구실이 따르니 외출 자제. 조끼기. 71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 명예가 따르다. 83년 결혼이나 맞선 또는 선약이 생기거나 한다. 95년 기쁜 일이 있을 후 걱정할 일도 찾아온다.